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고용 호조, 금리 인하 가능성 낮아져
- WSJ: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 “추가 금리는 기다려야”
- Bloomberg: 미 소비자 인플레이 예상치, 2008년 이래 경총
- WSJ: 도표로 본 미 실업률 추세

[미국 금융]

- Bloomberg: 30년 국채 금리 5% 돌파...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 Bloomberg: 일자리 보고서에 주식도 ‘타격’입어

[미국 생활]

- Bloomberg: 스페인의 ‘골든 비자’ 중단에도 미국인들 몰린다

[오일]

- Bloomberg: 유가 80불 육박... 미국의 러시아산 오일 추가 제재로

[글로벌 경제]

- WSJ: 유엔, 세계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인플레이는 우려
- Bloomberg: 트럼프 복귀로 대만 대미 무역 흑자 증가

[전기차]

- CNBC: 테슬라, 중국에서 신모델 Y 출시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HP, 트럼프 취임식에 기부
- Bloomberg: 델타 항공, 수요 급증으로 예상 이상 수익
- WSJ: 식품회사들 ‘더 많은 제품 판매’에 주력
- CNNBusiness: 패스트푸드점들, 올해도 가격 경쟁 메뉴 선보인다
- Bloomberg: 월그린 “약품 매출 예상보다 양호해”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Strong US Jobs Report Backs Case for Pause in Fed Rate Cuts

고용 호조, 금리 인하 가능성 낮아져

- 오늘 금요일 발표된 12월 미 고용 지표는 지난 3월 이래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실업률도 예상외로 낮았다. 이로써 견조한 경제로 한해를 마감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 연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12월에 고용이 25만6천건의 증가했다. 실업률은 4.1%로 하락했다. 12월 평균 시간당 수입은 지난 11월에 비해 0.3% 상승했다.

- 이는 높은 차입비용, 인플레이,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장은 작년에 견조하게 마무리됐다는 뜻이다. 작년에 총 220만명의 고용이 있었다. 이는 2023년의 3백만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 2019년에 2백만명보다 높은 수치다.

Bloomberg 기사

WSJ: Fed Official Says Further Rate Cuts Can Wait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 “추가 금리는 기다려야”

-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인 Alberto Musalem은 강한 경제 지표와 높은 인플레이 때문에 추가 금리는 점진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중립 금리는 많은 동료들과 전문가들 추정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추정하면서 현재의 금리는 아마도 적절한 수준보다 덜 제약적이라고 말했다.
- 그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인플레이 여파에 대해 우려하면서 “경제가 복잡하다. 상황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WSJ 기사

Bloomberg: US Consumer Inflation Expectations Jump to Highest Since 2008 미 소비자 인플레이 예상치, 2008년 이래 꺾충

- 미 소비자들의 장기 인플레이 예상치가 지난 2008년 이래 가장 크게 뛰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 오늘 금요일 미시간대 1월 예비치 조사에서 미국인들은 물가가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연간 3.3%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예상치 3%를 상회하는 수치다.
- 이들은 또한 단기적으로 내년 물가 인상도 3.3%로 예상해 12월 예상치보다 0.5%를 초과했다.
- 한마디로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모두 인플레이 예상치를 높게 보고 있는 것이다.
- 1월 소비자 예비 심리지수는 74에서 73.2로 떨어졌다.

Bloomberg 기사

WSJ: How Unemployment Has Trended in Recent Years 도표로 본 미 실업률 추세

- 작년 12월의 미 실업률은 4.1%로, 11월의 4.2%보다 줄어들었다.

- 아래 도표는 지난 2021년 이래 실업률 추세를 보여준다.

WSJ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US 30-Year Yield Hits 5% as Traders Push Back Next Fed Rate Cut
30년 국채 금리 5% 돌파...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 미 국채가 급락 중이다. 오늘 발표된 강한 일자리 보고서 때문에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미루면서 국채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다.
- 매도세로 인해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30년물의 경우 과거 1년여 기간 중 가장 높게 상승해 5%를 상회했다. 10년물도 지난 202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2년물에서 7년물까지의 국채 금리는 10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보다 분명한 가격 재조정이 발생했다. 전통적인 베어 프레트너(수익률 곡선이 평평해지는 현상)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Stocks Hit as Big Jobs Surprise Boosts Bond Yields: Markets Wrap
일자리 보고서에 주식도 ‘타격’입어

- 오늘 강한 일자리 보고서가 나와 시장이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증시는 하락하고 국채 금리는 크게 상승했다. 또한 오늘 다른 보고서에서 소비자의 인플레이 기대 심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증시는 올해 초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다. S&P 500은 1.5% 이상 떨어졌으며, 국채도 강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달러는 다른 주요 통화에 비해 강세를 보이고 있다.
- 스왑 트레이더들은 지난 금요일만해도 올해 금리 인하폭을 38베이시스 포인트로 예상했다. 하지만 오늘 30베이시스 포인트를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Bloomberg 기사

[미국 생활]

Bloomberg: Americans Are Flocking to Spain Despite End of Golden Visas

스페인의 '골든 비자' 중단에도 미국인들 몰린다

- 스페인은 따뜻한 날씨와 여유로운 생활 스타일로 미국인 거주자들이 수년 동안 몰려왔다.
- 그런데 이른바 '골든 비자'를 오는 4월에 중단할 것이라고 스페인 정부는 발표했다. 이 비자는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두 번째 여권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미국인들은 작년 여름 스페인에 4만1천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는 3년 전보다 39%가 상승했고, 지난 2014년보다 두배 늘어난 수치다.
- 그런데 이 같은 골드 비자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유입 미국인들은 늘고 있다. 특히 논란이 있었던 대통령 선거 이후에 거주 관심도는 증가했다.

Bloomberg 기사

[오일]

Bloomberg: Oil Nears \$80 on Report of More US Sanctions Against Russia

유가 80불 육박... 미국의 러시아산 오일 추가 제재로

- 유가가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이 러시아산 오일에 대한 추가 제재를 대비하고 있어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79.77달러를 기록했다. Saxo 은행 상품 전략 책임자 Ole Hansen은 “겨울철 추운 날씨로 원유 수요가 강세인데, 러시아 석유 업계에 대한 추가 제재 보도로 인한 공급 우려가 가격에 불을 지폈다.”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원유 비축량 감소도 유가를 올리고 있다.

Bloomberg 기사

[글로벌 경제]

WSJ: U.N. Raises Global Growth Forecast, but Warns of Potential Inflation Threat

유엔, 세계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인플레는 우려

- 어제 목요일, 유엔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이전 보고서에선 2.7% 성장을 예상했지만, 이번엔 2.8% 성장을 예상했다. 유엔은 각국 중앙은행이 계속 기준금리를 낮추면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 하지만 잠재적 인플레이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유엔은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 인플레이 하락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주저해 성장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유엔은 “더 높은 관세와 더 많은 무역 제한은 가치 사슬(value chains)을 방해하고, 제조 활동을 약화시키고, 국경 간 투자를 방해하고, 수입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인플레이를 재점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Bloomberg: Taiwan's Trade Surplus With US Jumps to Record as Trump Returns

트럼프 복귀로 대만 대미 무역 흑자 증가

- 대만의 대미 무역 흑자가 2024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제 목요일 미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대만의 대미 순 수출액은 2023년보다 83.5% 증가한 649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만의 대미 수출액은 6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 이 같은 대만의 대미 무역 흑자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트럼프는 작년 7월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빼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화요일, 대만 총리 Cho Jung-tai는 무역, 투자 및 조달 분야에서 트럼프 요구에 맞춰 미국 에너지, 농산물, 군사 장비 구매를 늘리는 등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반면, 대만의 2024년 대중국 순 수출액은 117억 달러로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과 대만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둘 사이의 경제 의존도가 줄고 있다는 뜻이다.

Bloomberg 기사

[전기차]

CNBC: Tesla launches refreshed Model Y in China to fend off domestic rivals

테슬라, 중국에서 신모델 Y 출시

- 오늘 금요일, 테슬라가 중국에서 인기 있는 모델 Y의 개선판을 발표했다. 가격은 3만5천935 달러부터 시작된다. 이는 이전 모델 Y보다 5.4% 더 비싼 가격이다. 테슬라의 신모델 Y는 중국 시장에서만 예약 판매된다.
- 2024년 테슬라의 연간 인도량이 처음으로 감소했다.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 테슬라는 모델 Y 구매자에게 5년 0%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Canals의 수석 분석가 Jason Low는 “테슬라는 여전히 인기가 있지만 SUV 경쟁이 치열하다. 테슬라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력적인 스마트 기능, 독특하지만 현지화된 운전석, 서비스 생태계, 반자율 운전자 보조 기능을 선보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Bloomberg: HP Contributes to Trump Inaugural Fund With Tariff Risk Looming****HP, 트럼프 취임식에 기부**

- HP가 이번 달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기금을 기부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같은 기타 주요 기술 기업들도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 트럼프는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HP와 같이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하드웨어 제조업체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 HP의 CEO Enrique Lores는 11월 실적 발표 당시 “새 행정부와 협력해 고객과 주주 모두를 위한 최상의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HP는 취임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부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Delta Surges as Strong Demand Lifts Profit Above Estimates
델타 항공, 수요 급증으로 예상 이상 수익

- 델타 항공 CEO Ed Bastian은 인터뷰에서 “2025년 수요와 공급 균형이 매우 좋다. 1분기까지 좋은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 같은 델타 항공의 낙관적인 전망은 국내선 요금 상승과 견조한 국제선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TD Cowen의 분석가 Tom Fitzgerald는 “델타 항공의 다각화된 수익원 덕분에 분기 내내 수요가 급증했다.”라고 말했다.
- 또한 Bastian은 “11월 대선 이후 기술 및 금융 서비스 기업의 주도로 기업 고객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 델타 항공은 프리미엄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항공 여행에 더 많은 지출을 하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다.

Bloomberg 기사

WSJ: Why Food Companies Want Consumers to Buy More of Everything
식품회사들 ‘더 많은 제품 판매’에 주력

- 식품 회사들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고 말한다. 식품 회사는 더 많은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 마케팅에 공을 들이고 있다.

- 또한 식품 회사는 6개월 정도의 한정 판매로 소비자들의 흥미를 자극하면 더 많은 제품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수년간의 가격 인상이 식품 회사들의 이익을 높여줬지만, 더 이상 소비자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플레로 소비자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선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식품 회사들은 강조했다.
- 코스트코 도매 CFO Gary Millerchip은 “코스트코는 물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방식은 품목당 이익은 줄어들지만, 총 제품 판매수가 증가해 전체 이익은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냉동 새우 제품 가격을 1달러로 내렸는데, 새우 관련 제품 매출이 30% 증가했고, 전체 매출은 11%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CNNBusiness: A wave of significant menu changes is reshaping fast food

패스트푸드점들, 올해도 가격 경쟁 메뉴 선보인다

- 더 이상 맥도날드만 가격 부담이 없는 메뉴를 파는 패스트푸드점이 아니다. 던킨 도너츠, KFC, 써브웨이, 타코벨, 웬디스 등이 가격 인상과 인플레 때문에 등을 돌린 고객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저렴한 메뉴를 작년에 선보였다.
- 그리고 이 같은 가격 정책이 올해도 이어질 예정이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는 5달러짜리 McValue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선보인 1달러, 2달러, 3달러 메뉴 다음가는 큰 프로모션이다. 또한 5달러 메뉴에 1달러를 추가할 경우 메뉴를 한 개 더 제공한다. 앱 전용 할인도 시행될 예정이다.

CNNBusiness 기사

Bloomberg: Walgreens Surges on Better-Than-Expected US Pharmacy Sales

월그린 “약품 매출 예상보다 양호해”

- 오늘 금요일, 월그린이 11월에 끝난 회계 분기 매출이 39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브랜드 의약품 가격 상승과 미국 소매 약국 처방량 증가에 힘입어 월스트리트 예상보다 더 많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다.
- 투자자들은 여전히 월그린의 매각이나 분할 같은 개혁적인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월그린은 약국 운영이 안정화되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그린은 Village Medical 매각을 진행 중이며, Summit Health-CityMD에 대한 옵션을 평가하고 있다.
- 월그린은 지난 10년간 하락세를 보였다. 아마존 같은 온라인 업체나 코스트코 같은 대형 소매업체에서 비슷한 제품을 더 편리하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 소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월그린은 천 개가 넘는 매장을 폐쇄하고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찾고 있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미국 연준 인사들, 한동안 금리 동결 가능성 시사
주요국 국채금리 올라...미국 10년물 금리는 4.73%
크루그먼, 트럼프 정책 겨냥해 "광기 프리미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이 한동안 금리 동결을 시사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9일(현지시간) 보스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금리 조정에 대한 느린 접근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콜린스 총재는 "연준의 정책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 진전이 거의 없다면 현재 수준을 더 오래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